

김전일의 정보

- 이름: 긴다이치 하지메 (金田一きんだいち 一はじめ)
- 한국명: 김전일 (金田一) [2]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1978 년 8 월 5 일 [3]
- 별자리: 사자자리
- 연령: 17 세 (소년탐정 김전일)
- 본적: 사이타마 (埼玉) 현 [4]
- 주소: 도쿄 (東京) 도 후도야마 (不動山) 시
- 혈액형: B 형
- 키: 168cm
- 몸무게: 58kg
- 시력: 좌우 양쪽 모두 2.0
- 발 사이즈: 25.5cm
- IQ: 180
- 취미: 비디오 게임
- 특기: 마술, 소매치기, 탁구, 오목, 바둑, 쇼기 (한국판은 장기)
- 서투른 것: 롤러코스터 타기, 끈기
- 김전일은 오래 전 명탐정으로 명성을 떨친 긴다이치 코스케의 외손자로, 학력 수준이 나름 높은 후도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역대 최고 성적으로 통과할 만큼 두뇌 회전이 빠른 천재. 그래서 일부 교사들이 엄청 기대했지만 입학한 뒤에는 별볼일 없는 문제아로 취급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불명이지만, 시험이나 입시가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서 공부에는 아예 신경을 꺼버린 듯 하다. 그래서인지 교내에는 그의 소꿉친구이자 급우인 나나세 미유키가 작성한 답안을 베껴서 들어간 게 확실하다는 헛소문이 나돌 정도다.

공부뿐 아니라 운동 신경은 형편없어서 추리력 이외에는 거의 모든 요소가 평균 이하인 덜 떨어진 녀석으로 주변 인물들에게 인식된다. 다만, 달리기 하나는 자신 있다. 그 외의 특징으로 장발 남성 캐릭터란 점이 있는데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평소에는 묶고 다닌다. 이 헤어스타일은 작중에서만 아니라 타 작품 주인공들과 같이 나와도 구분이 쉽게 하는 시그니처 중 하나. 김전일은 자신이 긴다이치 코스케의 손자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있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할아버지를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다. 그 덕에 작중에서는 '의욕 제로의 허당'인 김전일이 '탐정'으로서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장치중 하나로서 곧잘 이용된다. 이러한 면모는 20 년이 지난 김전일 37 세의 사건부에서 더 잘 드러나서 할아버지를 '현대의 범죄에는 통하지 않는 구닥다리 탐정'으로 취급하거나 '이제는 기억하는 이도 없을 명탐정의 손자라는 간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사건을 벌이고 마무리 짓기를 반복하는 연쇄 살인마'라며 자신과 할아버지를 싸잡아 모욕하자 20 년 전의 트라우마마저 잊고 뻘뻘 수수께끼 풀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서 그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전일은 천재라는 말을 써도 과하지 않은 능력을 가졌다. 겉보기엔 더없이 한량하고 덜 떨어져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섭도록 예리한 두뇌와 눈썰미,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외유내강형 탐정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혈령한 성격인 것도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혈령한 척을 하는 모습 역시 작중 매우 자주 볼 수 있다. 추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범인이나 트릭이 밝혀지기 한참 전에도 자주 타인들이나 주변 상황을 좀 심할 정도로 냉철한 눈으로 관찰하거나 의심해서 떠보거나 하기도 하는데, 더 무서운 점은 그런 모습이 혈령한 겉모습이나 태도 때문에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저런 장점 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분은 논리력, 관찰력, 추리력이다. 명탐정이라고 부르는 할아버지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두뇌는 뛰어나다'는 말로 증명한다. 사건을 해결할 때 내놓은 수많은 지식만 보아도, 아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귀 전설 살인사건에서 시험 문제를 마구 찍고 자서 다른 건 다 틀렸는데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낸 고등학교 수준에서 절대 풀 수 없는 만점 방지 문제 딱 하나만 풀어냈다. 바둑이나 오목처럼 머리를 쓰는 게임에 강한 편이다. 장기는 장기 3 단인 켄모치한테 우위를 점할 정도로 잘 두고, 바둑은 할아버지를 이긴 적이 없어서 못 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바둑 명문으로 유명한 카이오 고교의 바둑 부장인 미츠이시를 손쉽게 이겨버렸다. 심지어 오목은 그 할아버지에게도 진 적이 없다. 게다가 특히나 작중에서 부각되는 점은 매서운 관찰력인데, 그 관찰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라 다른 사람이 그냥 넘어가는 사소한 것까지도 캐치해내서 금세 진상을 간파한다. 범인이 흘린 사소한 실언이나, 보통이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준의 사소한 증거까지 모두 기억하며 사건의 조각을 맞추는 수준은 가히 천재적.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소년탐정 김전일'에서의 탐정 김전일의 주된 추리 수단은 단순히 추리의 논리를 잘 쌓아나가거나 기발한 생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나 현장의 사소한 부분에서의 관찰력과 단서 수집 능력이 뛰어난 것에 있다. 단순한 말 한마디, 어색한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사건을 구성해내며, 그런 범인들이 사소한 실수 하나에 덜미를 잡혀 김전일에게 들키는 것이 만화의 주 레퍼토리일 정도. 원가당연시 돼버리곤 하지만, 언변 역시 엄청난 달변가다. 비록 외국어는 잘 못하지만, 일반 상용어는 말할 것도 없고 추론에 필요한 전문용어, 과학용어 등은 풍족히 알고 있으며, 여차의 풍부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추리가 허무맹랑하지 않다는 걸 사람들에게 빠르고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화법이 굉장히 탁월하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화술 + 적절한 비유와 떡밥 등을 이용해서 청중의 주목과 흥미를 유도하는 스토리텔링 기술도 무지하게 좋아서, 처음에는 '흥, 탐정 흥내 내고 있네'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도 김전일과 몇 번 얘기를 나누면 어느 샌가 '그 그럴 수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렇다면 범인은 ~한 사람이란 애긴가?' 라며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고 있다. 추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주인공측 사람들이 추임새를 넣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나중에 가면 오히려 사건 관계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는 식이다. 작중 김전일이 추리를 설명하는 과정은 굉장히 정교하고도 우수한데, 우선 사건의 전체 열개를 다시 설명한 뒤, 범인이 외부인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범인은 이 안에 있어!'를 선언, 청중의 긴장을 극대화한다. 그 후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나 추측되는 동기(원한 문제, 유산 문제 등)를 설명하여 살인사건에 스토리텔링 성격을 부여한다. 그 다음 사건의 여러 트릭을 하나씩 풀기 시작하는데, 이 때 트릭을 풀 수 있는 결정적 요소를 독특하게 비유(고쿠몬 학원 살인사건에서는 '극약', 혈류살 살인사건에서는 '나침반' 등)해서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즉 '전체 사건 요약 → 사건의 스토리텔링화 → 전체 사건을 첫째, 둘째, 셋째 사건 하는 식으로 구조화 → 각각의 사건에 대한 풀이를 설명하면서 비유를 사용한 '아이콘'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의 이해를 높임'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전체 구조를 요약하기 쉬울 뿐더러 김전일의 그 전 단계의 언급(사건의 배경, 사건의 핵심 요소, 사건의 풀이)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우선 납득하고' 넘어가게 된다. 가끔은 앞에서 떡밥을 던져 놓고 칼같이 클리프행어를 시전해서 청중의 관심을 지속시키는 장면도 나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김전일의 화술은 청중의 반론과 질문 제기를 유도한다는 점. 처음 트릭의 풀이를 말할 때, 김전일은 반박 가능성이 상당히 열린, 아주 큰 열개로서의 풀이만 우선 내놓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청중은 '그건 말도 안 돼! 그때 xx는 알리바이가 있잖아' 라거나 '○○를 하다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잖아', '경찰 검사에서 @@라고 나왔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식으로 김전일의 추리에 반론을 하고 든다. 그럼 그때 가서야 김전일이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이유는~' 식으로, 상대의 반론에 맞춰서 논리적인 설명을 제기해 의문점을 해소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중은 김전일의 추리를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추리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니 실상은 김전일이 이미 다 증명하고 결론내린 사항이라도, 자신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듣는 과정에서 질문자 자신이 느끼는 추리의 설득력은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김전일은 그런

질문에 "그게 바로 xx 가 oo 를 한 또 다른 이유예요" 하는 식으로, 상대가 가지는 의문 자체를 자신이 앞서 언급한 사건 배경이나 트릭의 내용과의 연결점으로 삼아버린다. 그러면 청중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고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납득하게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소년이며 한번 옳다고 여긴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굳센 성격이기도 하다. 심지어 연쇄살인은 기본에 온갖 기묘묘한 트릭을 밥 먹듯 생각하는 범인들의 범죄를 밝히면서도 절대로 범인들이 자살하거나 다른 이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 올바른 마인드의 소유자. 앞서 서술한대로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소년이라는 말처럼 범죄에 관한 마인드는 엄격하면서도, 죄 그 자체보다는 사람을 위할줄 아는 매우 선량한 인물이다. 앞서 서술했듯 범인들이 자살하거나, 복수를 위해서 다른이를 살해하는건 옳지 않다고 하며, 죄를 원망하면서도 원한으로 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진심으로 동정하며 뉘우치게 하고 구원의 말을 건네는걸 보면 단순히 추리만 잘하는 천재아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내면의 인간의 구원을 바라는 선함과 여러 인간적인 면까지 동시에 느끼게 할 정도. 특히나 에도가와 코난이 살인사건을 흥미로 여기며 반쯤 놀이로 여기려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반해서 이쪽은 그런 경향은 전혀 없다. 도리어 살인사건을 내기로 써먹는 초기의 캐릭터가 정립되지 않았을적의 아케치 켄고에게 "살인사건을 내기로 여기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투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소위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태도는 연재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김전일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심성은 상당히 주목할 만 한데, 자기 목숨을 걸고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주인공 보정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남을 구하다가 대신 죽었을 인물. 총을 대신 맞거나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거나 데스게임에서 탈출 순서를 양보하는 등 온갖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성품 자체가 범인에게 큰 위협이 된 사건도 있다. 90 년대에 나온 작품의 주인공답게 호색한 편이다. 기본적으로 미유키와 연인이나 다름없는 관계지만, 미인만 나오면 혹하는 버릇이 있다. 일단 예쁘다 하면 무조건 반응을 보인다. 소꿉친구인 소타와 코시로가 부르는 별명은 변태 마왕. 다만 미인이어도 성격이 4 차원인 경우엔 여자 밝히는 김전일조차 꺼린다.

김전일이 말했던 주요 대사:

- "사쿠라기 선배. 방과 후의 마술사 따윈 없었어요. 잘못을 되풀이 했던 불쌍한 인간이 있었을 뿐"
- "세이코 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일러요"
- "이 살인 사건의 목적은 회원권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 "모든 트릭을 알아냈어"

- "도망칠 생각 말아요 범인인 당신"
- "타키가와 씨 그건 바로 당신이었어"
- "네 전 몰라요! 복수를 하고 나니까 만족스럽냐고요. 돌이킬 수 없는 비극만 불러올 뿐이에요"
- "한 가운데가 깨져있죠? 한 가운데가 아니라 잠금장치 부근에 유리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인이 내부에 있다는 증거예요"
-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어"
- "초대받지 않은 일곱번째 손님은 미도리! 넌 비극의 주인공을 멋지게 연기했어 사이키 코이치로!"
- "시라미네 선배는 오늘 처음으로 이 스키복을 입었다고 했어 옷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건 미처 못 봤을거야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 빨간 스키복이라고 말이야!
감시카메라는 흑백이었어 넌 스키복 색깔이 뭔지 절대로 알 수 없어! 어떻게 영화에서 빨강계 변한 스키복 색깔을 알고 있었을까?"
- "범인이기 때문이야"
- "아직 안 끝났어요!"
- "사루히코는 고소공포증이었어요! 센다 사루히코는 긴 장대가위를 썼어요 사다리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루히코는 고소공포증이 있었기에 범인일 수 없었고 진범은 사루히코가 저지를 수 없는 범행 현장을 꾸미고 만거죠"
-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이 공모해서 일어난 범죄예요 저를 내리친 사람은 뒤에서 나타났죠 다시 말해, 범인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란 얘기죠"
- "무슨 수로 알았겠어요? 이건 아카이 씨가 갑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오후 5 시쯤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진은 아침 6 시에 찍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당신이 사용한 절묘한 트릭의 실체였던 겁니다 배의 항로를 정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돌린 거예요"
- "타카토가 준비한 트릭의 일부분이었죠"
- "지옥의 인형술사, 타카토 요이치 우린 언젠가 또다시 만나게 될거야"

- "그 녀석만은 절대로 용서 못해!"
- "알아냈어... 밀실 살인의 속임수를!"
- "비가 퍼붓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발자국이 남지 않은 살인 사건을 연출한 거예요.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죠"
- "물론 그 수수께끼도 이미 다 풀렸어요"
- "이 종이를 거꾸로 들면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썸을 죽인 몬스터, 그건 바로 너야!"
- "젠다씨가 습격을 당했어"
- "이 사건의 트릭을 성공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 "자동적으로 회수될 수 있는 트릭을 썼어요. 다시 말해, 범인은 스스로 줄을 회수할 수 없는 한 사람."
- "다시 말해, 회사의 이미지를 핑계로 시체를 숨겼던 인물, 당신이에요!"